

2035 소상공인 생존전략... 창업보다 '유지·성장'에 초점

소상공인정책학회 미래정책포럼

오프라인 쇠퇴·인구감소 위기 진단
스마트화·데이터 활용 인프라 주문
자영업자 기본사회보장 체계 제언
한계 소상공인 퇴출·재취업 지원
다 사례로 지역경제 연계전략 제시

‘203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상권 쇠퇴로 운영이 쉽지 않은 등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 바뀐 환경에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노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변화, 인구 감소, 경쟁력 심화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 스스로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같은 내용은 (사)소상공인정책학회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응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학회 미래정책포럼에서 (왼쪽 5번째부터) 오기용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방안’을 주제로 연 제1차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두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2023년을 위해 2026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심화를 고려해 창업보다는 유지·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퇴출 및 재취업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선 자금, 기업가 정신, 기술, 경영, 데이터 등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업으로서의 지속성을 위해 ‘자영업자 기본사회보장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실장은 “디지털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엔 국가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정부 주도 모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플랫폼으로서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해 디지털전환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이 높은 소상공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민간주도의 지원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 소비자 행동 및 생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선 소상공인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 관련 데이터 개방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간사이대 상학부 최상철 교수는 ‘장기불황기 일본 소매시장의 특징과 소상공인 전략과제’라는 내용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의 지역애와 이에 근거한 일본 소매기업의 지역도착화 전략과 한국의 ‘서울일극집중화’ 및 ‘지역의 서울화’를 비교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소상공인은 경제적 약자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적 존재로 리포지셔닝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수단엔 한계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보다 지역 문제 해결, 지역 경제 유지 전략 사례 수집·컨설팅 등 전략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매설 ROV 국산화 추진

팬스타로보틱스와 ROV 개발 협력
1만톤급 포설선 확보 2척 체제 구축
외산 장비·해외 인력 의존 축소 기대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포설선 확보에 이어 매설용 무인수중로봇(ROV)과 운용 기술 국산화에 나섰다. LS전선이 앞서 자체 매설장비와 운용인력을 확보해온 가운데 대한전선도 포설에서 매설까지 시공 역량을 넓히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19일 팬스타로보틱스와 해상풍력·HVDC 용 고성능 매설 ROV와 운용시스템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선은 최근 1만톤급 포설선 ‘스칸디 컨베터’를 확보해 기존 ‘팔로스’와 2척 체제를 갖췄다.

해저케이블 시공에서는 케이블을 해저 상황과 조류에 맞춰 끌어내는 포설과 ROV 등을 활용해 케이블을 해저면 아래에 묻어 보호하는 매설 등이 이뤄진다. 고가



이준원 대한전선 전무(왼쪽)와 민정택 팬스타로보틱스 대표가 해저케이블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

케이블의 손상을 막으려면 해저 환경에 맞춰 장비를 제어할 전문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대한전선에 따르면 현재 대형·고난도 HVDC 매설장비는 대부분 외산이며 운용도 해외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임대 비용과 장비 수급 지연 부담 때문에 장비·기술 국산화가 프로젝트 수행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으로 꼽힌다.

실제 외산 장비 조달 차질 사례도 있다. LS전선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약 2324억원 규모의 완도~제주 90km 구간 ‘제주 3연계 HVDC 건설사업’을 수주했지만, 당초 투입 예정이던 영국 업체 매설장비가 대만 프로젝트로 차출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LS마린솔루션은 보유 ROV의 출력을 1.5배 높인 ‘QT1500’으로 개조해 대체 투입하고 영국 SMD사와 핵심 부품 국산화도 진행했다. QT1500은 다목적 선박 ‘미레로’에 탑재돼 매설 작업을 수행했으며 제주 3연계 HVDC는 2024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LS마린솔루션은 전신 KT서브마린 시절부터 매설 기술을 축적했다. 1998년 국내 최초 포설선 ‘세계로’와 함께 해저케이블을 묻는 매설기(Plough)와 ROV를 도입하고, 2011년 다목적선 ‘미레로’를 확보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지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 확대

랭글러 ‘골디락스 에디션’ 한정 판매
온라인 예약 후 공식 딜러 계약·인도

국내 수입차 시장의 판매 방식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완성차 브랜드 전략도 바뀌고 있다.

테슬라와 폴스타가 온라인 중심 판매를 정착시킨 데 이어 BMW코리아도 온라인숍을 통해 전용 모델과 한정판을 선보이고 있다. 이제 온라인 판매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소비자와 만나는 새로운 접점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에 정통 오프로더의 상징인 지프도 합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

는 지난 19일 지프 랭글러의 한정판 ‘골디락스 에디션’의 판매 채널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선택했다. 구매 방식은 간절하다. 소비자는 네이버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예약금을 결제한 뒤 희망 출고 날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후 계약과 차량 인도는 지프 공식 딜러가 맡는다. 가격과 구매 조건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프의 전략에서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판매 자체보다 ‘어디에서 파느냐’에 있다. 자체 온라인 플랫폼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대신 소비자가 이미 검색과 쇼핑을 위해 이용하는 네이버라는 생활형 플랫폼 안으로 들어갔다.

/양성운 기자 ysw@

벤처기업협회 인도 진출 벤처기업 모집

벤처기업협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인도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4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 벤처기업의 서남아시아 거점 진출과 현지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벤처협회는 전 세계 27개국 48개 지부에서 161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한인 벤처네트워크인 INKE 뉴델리 지부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소비재 ▲화학제품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등 인도 현지 시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전 산업 분야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기아, 차량용 앱 생태계 확대

차량용 앱 주제 첫 사내 해커톤 개최
임직원 100여명 참여 25개팀 경연

현대자동차·기아가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전환에 맞춰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임직원이 직접 차량용 앱을 개발하는 사내 해커톤을 처음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실제 서비스화를 검토하는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일 판교테크원에서 차량용 앱 개발 경연 프로그램 ‘24H 코드 레이스’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Pleoss Connect)’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앱 생태계 ‘앱마켓’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에코프로비엠, 유럽 하이니켈 공급 확대

헝가리 공장 NCA·NCM 혼용 전환
내년 4분기 독일 완성차 공급

에코프로비엠이 ‘자동차 본고장’ 유럽의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하이니켈 양극소재 공급 확대에 나선다. 헝가리 공장을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니켈·코발트·망간(NCM) 혼용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와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4분기부터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하이니켈 양극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의 기존 NCA 생산라인 개조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NCM 양극소재도 생산할 수 있는 NCA·NCM 혼용 라인으로 개조하기 위해 관련 설비 발주와 선적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약 4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가 차량용 앱을 주제로 해커톤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접수한 220여 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25개 팀을 선발했으며, 연구직뿐 아니라 일반직까지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4시간 동안 팀 단위로 안전,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게이미피케이션 등 차량과 일상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시연 가능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했다.

특히 사내 생생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바이프 코딩’을 통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고 고도화했다. 개발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양성운 기자

올해 상반기 상업 가동에 들어간 헝가리 공장은 3개 라인에서 연간 5만4000톤의 양극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6월 1호 라인을 가동한 데 이어 오는 9월 2호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생산 목표는 1만톤이며 내년에는 3만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과 유럽 완성차 업체의 역내산 조달 확대 요구가 이어지면서 헝가리 법인의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 공급할 제품은 니켈 함량이 90%를 넘는 하이니켈 양극소재다. 니켈이 양극소재 제조원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조성 중인 BNSI 제련소를 통해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